‘동풍 총동문회’, 한국 최고 풍수지리 동문회 발돋움



2024년 4월 21일 열린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과정 총동문회 제2회 세미나에 참여한 동풍 동문들이 발전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월 21일 동국대서 제2회 학술 세미나 성료

50여 풍수사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풍수학설 논한 자리
생활 풍수로의 전환 기회로
안철주 “세종기념관 건립을”

조선왕조 태조 6년인 1397년 5월 15일 인왕산 동쪽 준수방에서 정안군 이방원의 셋째 아들 충녕군 이도(훗날 세종)가 탄생했다. 정안군 이방원은 조선 초기 정도전 등 공신 세력에게 밀려 지금의 통인시장 근처에 살았다. 준수방은 경복궁 영추문 건너편 동네로 1750년대 도성대지도를 보면 경복궁 서편의 청운동을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옥인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쳐지는 작은 삼각지대로 표기되어 있다.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글을 아는 이라면 세종대왕은 다 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세종이 묻힌 여주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 대부분 이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세종이 22세까지 살았던 그곳에 대해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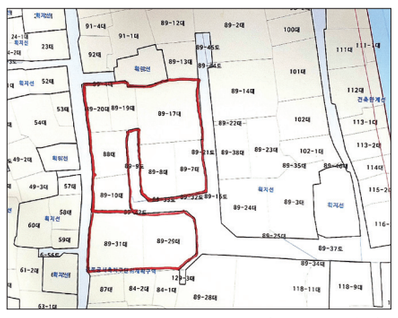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과정 총동문회(회장 도심 스님, 이하 동풍 총동문회)가 4월 21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제2회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준수방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과 한글 보급의 중요성, 그리고 한글에 숨겨진 음양오행의 원리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이날 제1발제를 맡은 안철주 동풍 총동문회 고문은 “한글윷놀이를 비롯한 한글 보급에 천착했다. 세종대왕께서 나신 곳을 추정하여 재를 지내며 이를 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며 “풍수지리학적으로 종로구 통인동 89번지 일대 약 518평이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주 동풍 총동문회 고문



1750년대 도성대지도. 준수방 위치를 볼 수 있다.


안철주 고문 추정 세종대왕 나신 곳(통인동 89번지).

안 고문은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고 경복궁을 방문하는 시대다. 준수방 자리에 세종탄신기념관을 비롯하여 한글체험교육관을 건립해야겠다는 원력을 갖고 있다. 학계에서 준수방 자리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지역 일대를 추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고문은 발제에서 2016년부터 천착하고 있는 한글윷놀이와 한글 속의 음양오행 구조에 관해 설명했다. 안 고문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발성기관별로 윷판에 배열하여 윷놀이하며 한글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창안됐다”고 설명했다. 안 고문에 따르면 한글윷놀이 과정에서 윷판과 윷말의 자음과 모음 조합을 통해 약 600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이 단어를 통하여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다.

안 고문은 “세종께서 만드신 한글은 풍수에서 중요시했던 자연의 원리와 음양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음양오행이 결국 자연스러운 조화를 나타내기에 이것이 바로 세계 언어학자들도 한글을 으뜸으로 삼는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양상현 현장교수가 ‘생지명당에 과학적 접목’ 발표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라 풍수 공부도 변해야 한다. 명당에 대한 의식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라며 “수천 년 전 초원시적 고서에 의존하는 고집을 내려놓고, 현대과학에 준용한 내용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 속 아파트 빌라 등의 감정평가에 풍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세계화 시대에 해외의 여러 장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변화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풍수와 선불교’를 발표한 현장교수 재홍 스님도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가 주연이다’라는 것이다. 내 스스로 그릇이 되어야 삶의 터전이 바뀌고 가장 명당터인 곳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라며 “풍수는 외부적 요건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리를 살펴야 진정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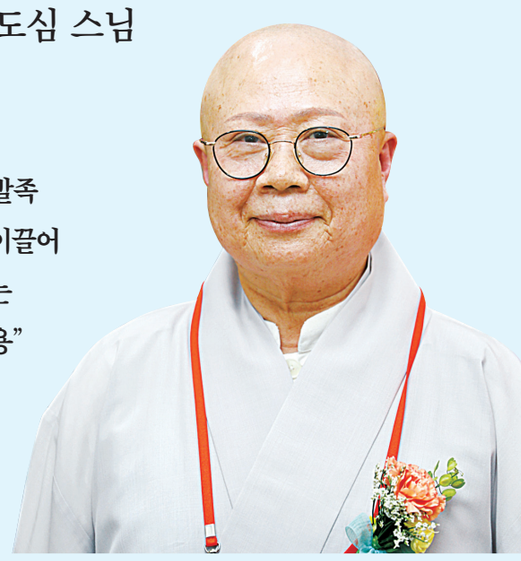
이밖에 김기영 고문의 ‘조선왕조의 풍수 제도 고찰’이 발표됐다.

끝으로 동풍 총동문회 상임수석부회장 무각 스님은 “풍수와 불교는 밀접한 관계다. 조선조 억불숭유 당시 사찰들이 산중에 자리잡게 된 이면에 풍수지리사상이 있었다”며 “금번 세미나는 3회 세미나를 위한 사전행사로 앞으로 동풍 동문들이 힘을 모아 정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종립 동국대’ 위상 맞게 조직 뒷바라지

동풍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2019년 총동문회 발족
물심양면 조직화 이끌어
“대중 마음 편케하는
佛法 방편으로 활용”



2019년 초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도심 스님은 5년 동안 풍수지리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스님은 “한국 풍수지리는 불교와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고 접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다”라며 “풍수사들이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고, 그 연장선에서 연간 10회의 현장학습과 토론회를 거쳐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스님은 총동문회 운영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회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비를 들여 활동을 지원했다. 5년 임기 동안 스님이 지원한 액수만 1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스님은 “현장학습은 학업의 일환이기에 장학금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다. 다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화합하여 한국 최고의 풍수사, 한국 최고의 풍수지리학 터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진했다”라고 말했다.

도심 스님은 2025년 4월까지 총동문회장으로서 1년 임기를 남기고 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수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풍수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동풍 총동문회’, 사회공헌 지속… 한국풍수 중심으로 발전

풍수지리학은 동양지리학의 한 분야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전통학문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현대화된 학문 발전의 필요에 따라 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동국대 행정대학원 내 ‘생활풍수CEO과정’은 이 과정을 거친 이들이 동풍 총동문회를 통하여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한국풍수학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생활풍수’라는 타이틀에 맞게 양택(살아있는 자의 풍수택지)에 주목하고 있다.

동풍 총동문회는 동풍 교육과정을 이수한 1기부터 19기까지의 300여 명이 2019년 4월 23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발족시켰다.

초대회장으로 동풍 6기인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을 추대한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동풍 총동문회는 종립 동국대 산하 교육과정으로 ‘도선대사’와 ‘무학대사’ 등 불교계의 풍수 연관된 고승 대덕의 발자취를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찰 등에서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괴산 흥천사 우암 송시열 묘소 답사, 2021년 10월 건봉사 답사, 2021년 11월 공주 봉황동 영규대사 묘소 답사, 2022년 5월 조계사 현장학습, 2022년 11월 한양도성 간산, 길상사 현장학습, 청와대 답사, 2022년 12월 한양도성 3차 간산, 신덕왕후묘소 현장학습, 2023년 7월 용인 와우정사 현장학습, 2023년 9월 국립현충원 현장학습, 2023년 11월 음성 반기문생가 현장학습, 2024년 1월 선운사 김요협 묘소 현장학습 등을 진행했다.

학문 발전에도 힘써 2023년 4월 16일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한국풍수의 재정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2024년 4월 21일 동국대에서 제2회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밖에 사회공헌을 위하여 각계 봉사활동과 함께 후학양성을 위해 2019년 총동문회 출범 때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이 동국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2023년 4월 16일 제1회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대에 프로젝트500기금 1,000만 원을, 2023년 9월 1일 동국대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2024년 4월 21일 제2회 세미나 현장에서 행정대학원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